

## 범애기

바람을 막기 위하여 밤으로 병풍을 하나 문 앞에 치고 잔다. 그런데 이 병풍을 치던 날 세 살짜 나는 어린것의 어휘가 다섯 개가 늘었다. 병풍이 다섯 쪽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쪽에는 독수리, 둘째 쪽에는 산, 셋째 쪽에는 범, 넷째 쪽에는 매화, 다섯 째는 죽(竹), 이렇게 다섯 장의 그림이 붙어 있다. 그래서 어린 것에게 그 그림들을 가리키며 발음 능력의 정도를 참작하여 발음하기 쉽도록 다소 정확성은 잃지만 새, 산, 범, 꽃, 대, 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어린것이 늦게까지 자지를 앓기에 빨리 재울 작정으로 「저 범 봐라. 저 범이 너 안 잔다고 저 산속에서 어형 하고 뛰어 나왔다. 에이 무서. 이불을 꼭 눌러쓰고 자자」하며 요 위에 누고 이불을 둘러쓰 이려 하였다. 그러나 어린것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도리어 이불을 걷어 버리고 일어나 앉아 병풍속의 산과 범을 가르키며 「범 산 양 양」 한다. 그의 눈은 분명히 무섭다는 표정을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심으로 무섭다는 표정은 없었다. 나는 그의 표정에 흥미를 느껴 정말 범애기를 시작하였다. 「옛날 한 사람이 금강산으로 범 사냥을 갔더란다. 그런데 엄마하고 얘기하고 암만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거든. 너만 하던 얘기가 자꾸자꾸 커서 누나만 해지고 또 자꾸자꾸 커서 아빠

만 해도 안 오거든. 그래서 아들이 총을 메고 금강산 골짜기로 골짜기로 자꾸만 자꾸만 들어갔지. 아 그랬더니 범이 이 산에서도 어형 저 산에서도 어형 어형 어형 어형」 이렇게 되도록 어린것에게 구상적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온갖 표정과 손짓을 해가며 이야기를 하였다. 어린것은 의외에도 끝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 그 눈은 가끔 무슨 그림자에 덮혀 잠깐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반짝 밝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표정에서 무슨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린것은 「아빠, 범애기」 하고 졸랐다. 나는 또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전날 저녁에 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후로 나는 오늘까지 몇 십 번이나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러나 나의 이야기가 그의 머리 속에 어떠한 표상을 던져 주는 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의 물대우리를 일으켜주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비밀만 알아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언어, 예술, 사상 등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알아낼 수가 있을는지도 모를 것이다.

《조광》, 6권 4호, 1940. 4. 1)